

노중국, 『백제의 대외교섭과 교류』(제5편)

제2장 고구려, 신라, 가야와의 교섭과 교류

- 고구려 vs 신라(성왕과 진흥왕 간의 공수동맹) 및 가야와의 우호관계(백제·신라·가야 연합군), 남조의 양과 왜와의 우호관계
- 백제의 가야 지역 진출 vs 신라의 가야 지역 진출(성왕의 사비회의 개최)
→ 고구려와의 대립이 핵심 변수로 작용(신라와 적대하기 어려운 대외 환경)
- 삼국연합군의 고구려 공격(551년): 왜의 군수물자 지원, 돌궐의 남하
- 신라-고구려 연합과 백제 공격(555년, 백제의 고구려 공동 공격 요청→ 백제의 제안 고구려 통보)
→ 신라의 한성 차지: 중국으로 직접 통할 수 있는 교통로 확보
- 백제의 반격과 실패: 왜에 지원 요청, 신라의 고구려 지원
→ 백제, 가야, 왜 연합군의 신라 공격(554년), 성왕의 사망

제3장 남북조와의 다변 외교와 교류

- 541년 성왕은 양에 사신을 파견: 모시 박사, 열반경, 工匠, 畫師 파견 요청, 양의 수락, 549년 성왕은 양에 사신 재차 파견
- 581년 수나라가 통일하기 이전 북조의 분열에 따른 다변 외교 추진
- 567년, 577년 위덕왕은 남조의 진에 사신 파견
- 북제는 570년과 571년 사신을 파견하여 위덕왕을 '동청주제군사동청주자사백제왕'으로 책봉
- 위덕왕은 572년 북조의 북제에 사신 파견
- 위덕왕은 577년, 578년 북조의 북주에 사신 파견
- 양과의 문물 교류: 지식인·기술자의 요청(양의 수용), 五帝神祭의 도입, 서예
- 북조와의 문물 교류: 제도의 도입(관품제: 품으로 표현한 것은 중국의 영향), 周禮주의의 채택(4부: 사군부, 사도부, 사공부, 사구부), 中丁制의 도입(인구 파악)

제4장 수, 신라, 고구려와의 관계

- 581년 위덕왕은 수에 사신 파견, 수는 위덕왕을 '상개부의동삼사대방군공백제왕'으로 책봉, 582년, 584년에도 수에 사신 파견
- 585년에는 진에도 사신 파견, 589년 수문제에 의한 진의 멸망
- 589년 사신을 파견하여 진을 평정한 것 축하, 수는 백제의 사신 파견에 감사하면 서도 사신을 매년 입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, 585년 진에 사신을 보낸 것에 대한 제재 조치로 분석

- 위덕왕은 598년 장사 왕변나를 수에 파견,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 사실을 파악하고 軍導 요청, 수나라는 거절(군도를 요청하였을 때는 수와 고구려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정리된 상태)
- 7세기 신라와 백제의 군사적 대치
- 607년 무왕은 수에 사신을 파견하여 고구려 공격 요청
 - 고구려 문제를 이용하여 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의도로 분석
 - 수나라는 백제로 하여금 고구려의 동정을 살피도록 요구
 - 고구려는 백제의 대수 접근을 탐지하고 607년 백제 공격
 - 이후 백제는 고구려와 수나라의 어느 편도 들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(實持 兩端정책)
- 때로는 수의 비위를 거슬리는 행동, 때로는 수에 적극 협조
- 전자: 608년 수에 파견되었던 왜국 사신이 수나라 국서를 소지하고 귀국하다 백제에서 탈취당하는 사건
- 후자: 수양제가 고구려 공격을 준비할 때 국지모를 파견하여 군사 기일 요청
- 611년 백제의 신라 공격: 수나라에 군사기일 요청을 통한 수에 대한 우호적 입장 표명, 적대적인 행동으로 인식하는 고구려에 대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신호로 분석
 - 신라는 친수 정책 적극 추진

제5장 당, 신라, 고구려와의 교섭과 교류

당의 통일과 실지양단 정책의 지속

- 626년 명광개를 파견하여 고구려가 길을 막는다고 하소연: 당에 대해 백제가 친고구려 입장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, 신라 공격을 통해 고구려와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지 않겠다는 메시지
- 627년 무왕은 조카 복신을 사신으로 파견, 당태조의 국서: 백제에 대해 '신라는 당이 번국이고 백제의 이웃나라이므로 이웃의 정을 돈독히 하면서 征討를 중단하라'
- 7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정세: 고구려와 당의 대립, 백제는 실지양단 정책 고수, 고구려와 連和하여 신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정책 추진
- 국내 정세: 의자왕의 친위정변, 고구려 연개소문의 정변(보장왕 옹립)
- 641년 봄 무왕의 사망: 당태종은 현무문에서 친히 애도를 표하고 부의를 후히 내리고 사부낭중 정문표를 보내 의자왕을 '주국대방군왕백제왕'으로 책봉
- 641년 8월, 642년 정월 의자왕은 당에 사신 파견, 우호관계 유지
- 642년 겨울 김춘추, 백제의 위협 차단을 위한 군사요청을 위해 고구려 방문, 고구려의 거절→ 적극적인 대당외교로 전환
- 백제와 고구려 연합군에 의한 신라의 당향성 공격 계획, 신라의 당에 대한 지원요청: 백제가 고구려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는 것은 백제를 이용하여 당을 견제하려는 당의 의도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

- 신라의 지원요청에 대해 644년 정월 당태종이 사농승 상리현장을 고구려와 백제와 파견: '신라가 자신의 운명을 당나라에 맡기고 있으므로 신라를 공격하지 말 것', '만약 이 요구를 들지 않으면 이듬해 군대를 동원해 공격하겠다'

→ 신라 대야성을 함락하여 실리를 취득한 상황에서 당과 대립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당의 요구 수용: 645년 정월 태자 부여강신을 당에 파견, 고구려와 군사 동맹을 맺지 않았다는 점과 당나라 군대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기를 바란다는 뜻 전달

→ 이 시기 백제와 신라는 당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경쟁 속에 양자간 영역 확장을 위한 일진일퇴의 공방 전개

- 644년 7월 당태종은 고구려에 대한 외교적 압박에서 군사 원정으로 전환

- 644년 신라로 귀국하는 사신에게 원군 파견 요청

- 645년 의자왕에게도 조서를 보내 원군 파견 요청, 신라로 가는 당의 사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신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

- 신라는 원군 3만 파견, 백제는 문개(玄金으로 만든 갑옷) 등 진상

- 신라가 당에 원군을 파견한 틈을 노려 신라 공격

- 백제왕은 사신을 파견하여 백제가 고구려와 阿黨하고 協契 하지 않았을까 의심하는 당태종에게 변명

→ 백제의 대당접근책은 당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지만 당의 의사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, 고구려가 당과 대척점에 있는 한 당나라가 백제를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

- 고구려와의 전투 패배: 백제에 대한 외교적 압박에서 나당 동맹을 통해 백제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군사적 압박으로 전환

- 652년 정월 하정사를 당나라에 파견하는 등 당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당이 신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지속하자 의자왕은 왜와의 우호관계 강화에 주력

* 국가이익(군사적 실리)가 정책 수립의 핵심 기준(?)

* 세력 재편의 과정에서의 대외관계 설정(왕실간 결혼)

* 특히 한반도 내 세력간의 경쟁, 세력내 정치상황 및 왜와의 관계, 고구려 북방세력과의 관계→ 대중국정책과의 관계

* 무기 체계와 전술, 정보력

* 종합적으로 백제와 중원과의 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?